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김창수* · 하민호** · 서영준***

The qualitative study on socio-economic impact of seaport on neighborhood area: Focusing on Busan New Port

Kim, Chang-Soo · Ha, Min-Ho · Seo, Young-Joon

Abstract

Notwithstanding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residents in the seaport neighborhood area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a seaport, so far few studies examined i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Busan New Port on neighborhood area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as a qualitative case study. To conduct systematic interviews,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Total 13 interview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some positive socio-economic impacts of seaport on neighborhood area, and also some negative socio-economic impacts exi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port policy makers to formulate future port policy.

Key words: Seaport, socio-economic impact, neighborhood area, semi-structured interview, qualitative method.

▷ 논문접수: 2022. 05. 12. ▷ 심사완료: 2022. 06. 29. ▷ 게재확정: 2022. 06. 29.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제1저자, kcs4194@pusan.ac.kr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조교수, 공동저자, mhha77@inu.ac.kr

*** 경북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y.seo@knu.ac.kr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항만은 수륙교통의 결절점으로서 터미널 활동을 통해 여객과 화물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공간이다. 최근 항만은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발·운영되는 추세로, 항만 친수공간 등 항만과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시킨 공간을 조성하여 항만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항만 인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Oh et al., 2018). 새로운 항만 개발 시 거주민의 도심과 조화된 테마공간 등의 친수시설 제공(예: 해양박물관, 해양공원, 상업공간, 해양레포츠 센터 등), 수변지역 접근성 확보 등을 통해 기존 항만에 해양문화 및 휴식 공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몇몇 선진국 항만(예: 벨기에 안트워프항, 이탈리아 제노바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호주 멜버른항 등)에서는 거주민과의 활발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위해 항만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거주민에게 항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항만과 도시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만은 터미널 활동을 통해 무역, 상거래, 공업, 정보, 금융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며, 관련 경제활동분야의 집적과 인구의 집중을 초래한다(Park and Seo, 2016). 이러한 현상은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며 항만도시의 형성을 초래하게 된다. 부산, 인천, 광양, 울산 등은 항만도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인구의 집중과 생산, 경제의 집적으로 인해 도시의 거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해와 인구과밀에 의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교통소음,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이, 간접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시설 부족, 환경위생 악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항만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항만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외국에서는 항만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항만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항만이 인근 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량적 효과를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기법으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비용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임정덕, 2008; 정분도·홍금우, 2009; 유홍성 외, 2010; Seo and Park, 2018)하였으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항만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김창수(2021)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연구는 국가 전체적인 고용·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지역(광역시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취업·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해당 항만의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는 항만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항 신항의 건설이 국가와 부산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할 때 부산항 신항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연제구, 금정구 등 내륙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도 부산에 포함된 상태로 분석한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 인근 진해구와 강서구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김창수, 2021). 한편, 해외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북유럽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제 막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의 범위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지표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Doom et al., 2018).

항만 개발 및 운영 시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개발·운영으로 인해 항만인근지역 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인터뷰를 통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인근 지역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낸 후 이를 정리하며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정책의 수립과 항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립 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항만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되 항만의 사회경제적 효과 논의와 사회적 효과에 한정된 기존 연구를 논한다. III장에서는 연구방법, 즉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술하고,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해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연구결과와 요약 및 결론을 내린다.

II. 선행연구

항만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비용편익 분석,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항만과 도시의 재개발 연계 방안, 항만지역 도시재생 기본 구상 등 도시와 항만재개발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국토연구원, 2013; 토지주택연구원, 2018)는 존재하나, 새롭게 개발된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항만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과 유사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항만이 인근 지역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은 일부 연구된 바 있다.

김상구(2010)는 항만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항만과 항만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항만도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항만이 항만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소홀하게 연구된 주제인 해항도시의 질적 측면을 연구한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18개의 삶의 질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부산항과 인천항은 인구 1인당 제조업체 수, 인구 1인당 일반세출결산액, 주택보급률, 인구 1인당 문화재 수, 인구 1인당 금융기관 수, 인구 1인당 학교 수, 인구 1인당 병상 수, 인구 1인당 복지비 규모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상구(2012)는 항만이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해 부산항과 중국 대련항을 중심으로 항만과 해항도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총 17개의 삶의 질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부산항과 대련항은 당해 지역의 삶의 질 측정지표인 인구1인당 제조업체수, 인구1인당 일반세출결산액, 인구1인당 제조업체 고용자수, 도로포장율, 인구1인당 교통사고건수, 주택보급율, 인구1인당 금융기관수, 인구1인당 문화재수, 인구1인당 공원면적, 인구1인당 복지비, 인구1인당 화재발생건수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태휘·여기태(2012)는 그동안 항만은 양적인 성장만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창로 외(2019)는 동해시를 대상으로 화물차량의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을 통해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항만지역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된 외부불경제로 도로파손, 교통혼잡, 교통안전 위협, 그리고 인근지역 거

주자의 주거 환경 및 안전 악화 등을 지적하였다. 의 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해 입·출입하는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화물차량 1대당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항만이 항만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항만 인근 지역주민의 해당 항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김창곤·김명수(2012)는 과거 농어촌이었던 광양군이 기업형 항만 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광양항을 중심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양항이 개장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양항 개발 타당성 검토 당시에 논의되었던 개발 효과와 관련하여 광양항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주제로 시민의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적 도시화가 빠른 지역 거주민은 광양제철소를 광양시 대표 브랜드로 생각하고 있고, 농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면단위 거주민은 광양항을 광양시의 대표 브랜드로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양시민은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광양제철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양시민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가 광양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광양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동 연구는 항만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포괄적이며 개괄적인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론 및 결과

1. 질적연구 및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를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동시대의 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이다(Yin, 2003). 질적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사회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맥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다(Marshall and Rossman, 1995). Bygrave(1989)에 따르면 질적 접근은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이해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고 대안적인 이론이나 개념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 경우, Semi-structured 인터뷰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 방법은 연구 주제에 대해 풍부한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며 참가자의 Brainstorming이나 문제 인식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이 추가적인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사례연구 시 복수 사례의 사용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Brannick and Roche, 1997). 사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 주제와 이론적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 연구를 사용하였다. 부산항 신항 인근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항만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항만 부분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가치생산자, 가치전달자, 가치구매자, 가치영향자 등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 가치생산자에는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가치전달자에는 터미널 운영사, 항만서비스업체가 포함된다. 가치구매자에는 선사,

화주(포워드 등),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포함되며 가치영향자에는 항만인근 지역 거주민이 포함된다. 따라서 4개 그룹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항 신항 개발과 운영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신항의 개발과 운영 후 개인의 삶이나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부산항 신항 인근지역 주민으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면접해 봄으로써 항만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체계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별 Semi-structured 인터뷰지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건의 인터뷰(2020년 8월 중)를 진행하였다. 각 인터뷰당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아래 표 1은 응답자 개요를 나타낸다.

표 1. 인터뷰 응답자 개요

분류	이해관계자
A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어민
B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어민
C	부산항만공사 직원
D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직원
E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직원
F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G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H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I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J	용원동 상인
K	가덕도 식당가 상인
L	가덕도 인근 어민
M	가덕도 주민

2. 심층 인터뷰 결과

2.1 인터뷰 결과-인근 지역 거주민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심층 인터뷰는 ①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삶, ② 부산항 신항에 대한 인식 및 부정적 영향, ③ 건의사항과 같이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정리하여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해 인근 지역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식,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①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인근 지역 상인·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항만 건설 후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어민 A) “부산항 신항 건설 후 편의시설 등이 증가하여 삶이 편리해졌고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용원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가 생기고 진해IC가 건설되어 고속도로와의 연계성도 좋아졌습니다.”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어민 B) “부산항 신항 건설 전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잦았으나 방파제 건설로 태풍 피해가 줄어들어 삶이 나아졌어요.”

(용원동 상인 J)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저희 가게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인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덕도 식당가 상인 K)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해 가덕도 교통이 편리해져 주말 가덕도 관광객이 훨씬 많아진 느낌입니다. 덕분에 식당 매출도 올라갔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항 신항이 건설·운영된 후 어민들은 편의시설과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삶이 편리해졌고 태풍피해가 감소하여 삶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을 이야기 해주었으며, 상인들은 고객의 약 20~30%가 부산항 신항 근로자라며 주말의 관광객 증가로 자신의 매출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인근 지역 상인·주민의

부산항 신항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다수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였다.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어민 B) “우리 어민들은 부산항 신항 건설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어업이 불가능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원래 부산항 신항 건설 전에는 이곳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황금어장이었으나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업권 소멸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데다 마을의 평균연령이 매우 높아져 가까운 미래에 마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어업권 소멸 이후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데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연금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덕도 인근 어민 L) “부산항 신항 건설 이후 바다 물길이 변하여 어족자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조업량이 상당히 줄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원동 상인 J) “트레일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거주민 위험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덕도 식당가 상인 K) “밤에 크레인 롤러 소리 등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로감을 자주 느끼기는 하나 저 소음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멈춘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습니다.”

(가덕도 주민 M)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없는 듯 합니다. 어떤 타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연간 생활비, 자녀 교육비, 수도 사용료 등을 지원해 주지만 부산항 신항의 경우 삶의 터전을 잃고 땅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없어 부정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산의 쓰레기 매립장 주위 거주민들은 처음에는 건립을 반대했으나 현재 혜택이 많아 그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항만 내 크레인 사이렌 소리로 인하여 야간에 창문을 열기 힘들며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한 부산항 신항 건설 후 교통이 편리해져 관광객 수가 늘어나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덕도에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고 도시락 등을 지참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상인, 주민은 환경적 측면(항만의 크레인 소음), 안전 측면(트레일러로 인한 교통혼잡, 교통사고 위험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어민은 경제적 측면(어업권 소멸, 어족자원 감소, 지속적 경제지원 부재 등)에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존재하였다.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어민 A)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가 부산항 신항 터미널, 배후단지 물류업체 취업 시 우대 혜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항 신항 건설 시 어업인들 자녀의 취업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지속적인 수입도 사라져 이러한 우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항 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는 어민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등의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듯 합니다.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도 한번 없었구요. 따라서 열린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연구진은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항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만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문의해 보았고 공사 차원에서 인근 거주민 인식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사에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 구청 등에 물품 기증 등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인식 변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역민과의 갈등 유형은 위험화물 취급, 터미널 소음, 빛 소음, 트레일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용원동 상인 J)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 교통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불법 주차도 많이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실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운영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물었다. 이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물류창고마다 한정된 부지에서 한정된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때때로 장치공간이 부족하여 물류창고 밖 도로에 불법주차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치공간 부족 시 물류창고 주위에 사시만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시 넘버로 차주를 찾기도 어려워 불법 주차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가덕도 주민 M) “가덕도 주변 카페, 바다 청소 선박 운영 등을 부산항 신항 인근 거주민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항 신항 인근 거주민은 지속적인 소통 채널 부재, 빛 소음, 터미널 소음, 트레일러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항만을 개발·운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때 인근 거주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인터뷰 결과-항만 관련업체 종사자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심층 인터뷰는 ①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인근지역의 사회제반시설 변화 및 고용,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민과의 갈등 등과 같이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정리하여 항만관련업체 종사자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①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인근지역의 사회제반시설의 변화 및 고용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종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였다. 인근 지역 거주민의 응답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응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F)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인근에 아파트가 다수 건설되었고 편의시설, 병원, 약국, 금융기관, 문화시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인근지역 인프라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입사하여 1년 정도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의점도 없었고 학원, 영화관 시설도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항 신항 건설 후 가덕도 교통이 매우 좋아져 가덕도 관광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G) “저희 터미널의 경우 점심식사를 용원동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낙수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터미널 근처 식당, 주유소, 상점, 편의점, 트럭 정비소도 자주 이용하여 간접적인 고용효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직원 D) “부산항 신항 건설 뒤 용원일대 상업지구가 급성장하였고 인구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점심은 인근지역 식당과 계약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회식은 주로 용원동이나 가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 낙수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통해 인근 항만 관련업체 종사자는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인근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편의시설/문화시설/금융기관/식당시설 증가, 교통인프라 개선, 인근지역에서의 소비 증가 등)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② 부산항 신항 건설 후 종사자 기업의 CSR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민과의 갈등에 대해 인근지역 종사자들은 인근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H) “저희 터미널의 경우 매년 2회 정도(약 100명) 가덕도 해변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 인근 지역 어린이집이나 고아원에 기부하며 봉사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I) “창립기념일에 고구마 같은 식품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선물하는데 가급적 인근지역인 가덕도산 고구마를 구매합니다. 인근지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죠.”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F) “어린이들의 터미널 견학을 위해 하단에서 부산항 신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며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유 야드 트럭을 LNG로 바꾸고 갠트리 크레인도 전기로 전환하였습니다.”

(터미널 운영사 G) “연간 2억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조성하여 인근 고아원, 복지센터, 물류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성과를 정리하여 CSR레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H) “인근 지역 주민이 불빛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밤에는 터미널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비하여 항만규제가 약해 육상 전원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설치 의무화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AMP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추가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AMP관련 설비 설치 시 선박 내에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AMP관련 설비 설치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선사가 설치를 서두를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직원 I) “지역사회와 건전한 관계를 위하여 지역민을 종종 채용하고 있으나 회사에 세금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역민 출신의 터미널 취업 시 우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창기 지역민을 최대한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터미널 인력 채용 시 항운노조와 연계하여 추천을 받으므로 지역민 할당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상을 통해 전반적으로 부산항 신항 항만 관련업체는 CSR활동(기부, 봉사, 인근지역 특산품 구매 등), 환경오염 물질 저감 노력 등을 통하여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부산항 신항 항만관련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 항만이 인근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므로 기업 측면에서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2. 인터뷰 결과 요약

	응답 내용	응답자
항만의 사회경제적 효과	신항 건설 후 편의시설 증가로 삶의 질 향상	A, B, F, J, M
	병원, 약국, 금융기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증가로 인프라 개선	ALL
	교통 연계성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짐	A, F, L, M
	방파제 건설로 태풍, 해일 피해 감소	A, B
	상업인구 증가, 전입 인구 증가로 자영업 매출 증가	J, K
	가덕도 교통이 편리해져 자영업 매출 증가 및 관광객 증가	K
	신항 직원들이 인근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인근 지역 식당, 주유소, 상점, 편의점, 정비소 등에 낙수효과 존재	D, G, H,
항만의 부정적 효과	터미널 운영사의 경우 다양한 CSR활동을 실시하여 인근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예: 인근지역 특산물 구매, 어린이집/고아원 기부 및 봉사, 항만 내 설비 친환경 에너지 전환)	G, H, I
	어업권 소멸로 지속적 소득 없어 어업마을의 미래 불투명	A, B
	신항 건설 후 어족자원 및 조업량 감소	B, L
	트레일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A, J
	크레인 소음, 빛 소음, 대기오염	K, L, M
항만 인근지역 거주민의 정부 및 지자체 건의사항	가덕도 관광객 수는 늘어났으나 낙수효과가 크지 않고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 증가	K, L, M
	신항 건설 후 운영시 자녀들의 취업 우대혜택 필요	A, B
	가덕도 주변 카페, 바다 청소 선박 운영 등에 대한 항만 인근 거주민 우선권 필요	K, L, M
	위험화물 취급, 터미널 소음, 빛 소음, 트레일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해결 필요	A, B, J
	신항 인근 트레일러 불법 주차 해결 필요	A, B, J
	갈등 관리를 위한 정부, PA와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 창구 필요	A, B, J, K, L
어업권 소멸 보상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연금 형태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	A, B, L	

IV. 결론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면 인터뷰를 통해 항만 인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항 신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항만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실제 항만 인근지역 거주민과 항만관련업체 종사자들이 항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반적으로 부산항 신항 인근지역 상인·주민은 부산항 신항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여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정적 효과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트레일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터미널 소음, 빛 소음, (어민)삶의 터전 상실 등이 언급되었다. 부산항 신항 북항 터미널 인근

에는 부영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데 빛 소음과 터미널 소음으로 인하여 야간에 항만 운영을 중지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한다. 항만이 먼저 건설되고 아파트가 후에 건설되었지만 항만의 개발과 운영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소관인데 반해 아파트 건설 허가 및 주민들 생활여건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중앙부처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력, 소통으로 이러한 민원이 애초에 발생되지 않게끔 잘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 등 항만 개발·운영 주체와 인근 지역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어민 포함)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부와 항만관리자는 항만 개발·운영 시 핵심이해관계자의 하나인 인근지역 거주민과 이해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항만 건설 전의 일회적인 소통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채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몇몇 선진국 항만에서는 항만센터 건립·운영을 통하여 항만의 가치를 홍보함과 동시에 인근 거주민과 활발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전개해 오고 있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 부산항 신항 홍보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나 항만 홍보 목적이 주를 이루고 거주민과의 열린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창구 역할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 역할 창구로서의 확장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함부르크 항만의 경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웨덴 스톡홀름 항만의 경우 지역주민이 항만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근 거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거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므로 향후 항만 터미널, 배후단지 입주 업체 선정 시 '지역민 고용, CSR, 인근 지역에 봉사/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에 중

점점을 두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연안·도서 지역의 정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추진 중이며, 항만 구역과 생활공간 간 수변 및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수형방파제, 해양공원, 수변산책로 등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 확대로 지역민의 쾌적성을 높이고 항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또한, 항만과 인근 도심 사이에 수립대 형태의 친환경존(Eco-Zone)을 지정하는 등 부정적인 환경피해를 낮추기 위한 완충 기능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항만 인근 거주민이 인식하는 항만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국산화 기술을 양산하고, 검증을 거쳐 2030년부터는 부산항 진해신항에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항만이 건설되면 스마트 항만운영을 통해 항만에 출입하는 트레일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기시간 최적화가 가능하여 항만 인근에 대기하는 트레일러의 수가 감소된다. 이는 인근 지역 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트레일러의 정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환경 관리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환경 오염물질 등의 배출, 쓰레기, 폐기물, 소음, 용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인근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항만 인근지역 거주민의 생활여건 및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인근 지역

거주민들과의 사회적 공공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층 인터뷰 결과, 항만관련 종사자의 경우 인근 지역 거주민의 인식과 비교해 볼 때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항만 건설 후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낙수효과가 존재하며 간접고용효과도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항만관련업체 종사자들은 CSR관점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두인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ESG) 경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항만관련업체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노력, 친환경물류장비 도입 등은 항만관련 업체들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영향 등의 비재무적 성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결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인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지역민을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 항만운영으로 인하여 항만관련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시키나 해당 업체 근로자가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아니라면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혜택(경제적 효과)은 줄어들게 된다(양창호, 2021). 따라서 항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근 거주민의 채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에서 특정 직무는 항운 노조와 상의 또는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인근 지역민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1조의 5를 살펴보면(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향후 항만 인근 거주민의 고용에 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 신항 어업관련 종사자들은 타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가 쉽지 않고 타 업종으로의 전직을 위해서도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고용측면에서 취약계층

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만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인력구조를 보이며 항운노조의 존재로 취약집단에 매우 배타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근 지역민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밝히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총 인터뷰 응답 개수가 적어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다른 항만이나 타 집단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본 주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만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항만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검증하기 위해서는 양적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항만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지수(index)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항만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항만인근 이해관계자의 인식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구(2010), 해항도시의 삶의 질 비교분석 - 항만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6권 제3호, 287-293.
- 김상구(2012), 해항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항만의 영향력 분석 - 중국 대련항과 부산항의 비교분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제6호, 481-488.

- 김창곤 · 김명수(2012), 항만발전이 배후도시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광양항을 사례로-, 해양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31-63.
- 김창수(2021), 항만이 인근지역 생활여건에 미친 영향 분석, 항만경제학회지, 제37권 제4호, 71-87.
- 국토연구원(2013), 도시활성화를 위한 항만도시 재생전략 연구: 항만지역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 정분도 · 홍금우(2009), 항만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항만경제학회지, 제25권 제3호, 303-320.
- 이태휘 · 여기태(2012), 항만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8권 제4호, 559-579.
- 이창로 · 이슬이 · 박기호(2019),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제2호, 103-123.
- 임정덕(2008), 항만과 항만관련산업이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항만경제학회지, 제24권 제2호, 113-129.
- 유홍성 · 김연성 · 신진 · 정벤윤(2010), 항만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항만경제학회지, 제26권 제3호, 240-258.
- 양창호(2021), 항만경제, (서울), 박영사.
- 해양수산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 토지주택연구원(2018), 항만개발사업의 주변지역 연계를 통한 생활권계획 추진방안 연구.
- Brannick, T. and W. K. Roche (1997), Business Research Methods: Strategies, Techniques and Sources, Dublin: Oaktree Press.
- Bygrave, W. D.(1989), Bygrave, William D., The entrepreneurship paradigm (I): a philosophical look at its research methodolog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7-26.
- Dooms, M., Van Der Lugt, L., Schepper, De, S., and De Jong, O. (2018), Socio-economic performance assessment of port clusters: more challenges, fewer solutions? In Bergqvist, R. & Monios J. (Eds.), *Green Ports: Inland and Seaside sustainable transportation strategies* (1ed., 231-254). (Amsterdam), Elsevier.
- Marshall, C. and Rossman, G. B.(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Oh, H., Lee, S. W. and Seo, Y. J.(2018), The evaluation of seaport sustainability: The case of South Korea,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161, 50-56.
- Park, J. S. and Seo, Y. J. (2016), The impact of seaports on the regional economies in South Korea: Panel evidence from the augmented Solow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85, 107-119.
- Seo, Y. J. and Park, J. S. (2018), The role of seaports in regional employ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 *Regional Studies*, 52(1), 80-92.
- Yin, R.(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Publication.

항만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김창수 · 하민호 · 서영준

국문요약

항만 개발·운영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으로 인해 항만인근지역 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면인터뷰를 통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별 Semi-Structured 인터뷰지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정책 수립과 항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항만, 사회경제적 영향, 인근지역, 인터뷰, 질적 연구